



5면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개소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음 11월 21일) 제3161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년 전북도 본예산 9조8618억원

올해보다 8.4% 증액
민생경제·도민 안전
청년 투자 등에 반영

농어가 경영안정 대책
수정예산안 마련 따라
농업예산 대폭 증가

2023년도 전북도 본예산이 9조8618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3일 제306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2023년도 전북도 예산안 9조8618억원, 전북도교육청 4조5,787억원과 2021년도 추경예산 14조3,682억원(도 9조4,374억원, 도교육청 4조9,308억원)을 심의104의결했다고 전했다.

예산안에서 중점으로 둔 것은 '경제민생 활성화와 안전한 전북',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예산',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복지와 생활 예산' 등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8.4%(7,613억원)가 증가한 9조8,618억원으로 10조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민생경제 대책 및 혁신산업 기반 조성에 1조489억원, 중대재해 대응, 재해예방 보장 등 도민 안전



김관영 도지사가 1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2023년 전북도 본예산 확정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에 8,768억원, 미래를 이룰 청년세대 투자 및 교육협치 강화에 3,492억원,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촌 활력 강화에 1조342억원, 도민 누구나 고루 잘 사는 복지 구현에 2조2,040억원,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및 변화된 도정 구현에 3,640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도는 원자재 가격 인상, 고물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어가 경영안정 특별대책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북도 농업예산은 2022년도 9,508억원보다 884억원이 늘어난 1조3,34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예산이 혁신적인 전북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가장 어렵고 힘든 약자를 보듬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촘촘하게 썼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경수 기자

도의회, 올 의정활동 마무리

탄소중립특위 구성 결의·군산항 수심 확보 대책 등 안건 처리
12대 의회 출범 이후 조례안 66건 제정, 건의·결의안 42건 채택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06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를 끝으로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금리인상기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농협중앙회 분사 전북 이전 촉구 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가 심의한 2023년도 전북도 예산안 9조8,618억원, 전북도교육청 4조5,787억원과 2021년도 추경예산 14조3,682억원(도 9조4,374억원, 도교육청 4조9,308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김관영은 의장은 "제12대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기본에 충실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열정을 쏟았다"며 "2023년 새해에도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연구에 집중하면서 도정 현안 해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투자공사 전북 이전 촉구

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전라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3일 정부 등을 상대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공동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전북도의 금융산업 육성, 가장 어렵고 힘든 약자를 보듬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촘촘하게 썼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연내 조속 착수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과 전북 이전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 균형발전특위 이명연 위원장은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자산운용사들의 집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앞서 기 이전한 국민연금공단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 관광지 7곳 '한국관광 100선' 선정

전주 한옥마을·정읍 내장산·진안 마이산, 대표 관광지 입지 확고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고창 고인돌은 곡습지마을, 익산 왕궁리유적, 군산 고군산군도, 무주 반디랜드와 태권도원,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진안 마이산도립공원, 전주 한옥마을 등 7곳이 선정됐다고 13일 전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볼 만한 대표 관광지 10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문화부의 대표적 사업이다.

특히, 고창 고인돌은곡습지마을, 익산 왕궁리유적, 군산 고군산군도, 무주 반디랜드는 한국관광 100선에 처음으로 선정됐다.

또, 전주 한옥마을은 2013년부터 6회 연속으로 선정, 진안 마이산과 내장산국립공원은 5회 선정으로 대표 관광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전북도는 이번 한국관광 100선에 새롭게 주목받는 관광지와 탄탄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전주 한옥마을. (사진=전북도청 제공)

관광매력을 가진 대표 관광지가 고루 펼쳐 향후 외래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천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깨끗한 자연환경, 전통문화와 자원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유산

자원 등 전북의 특색을 한국관광 100선 관광지에서 다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한국관광 100선을 중심으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고비사막·내몽골 고원서 황사 발생

전북, 미세먼지 주의보 → 경보 상황

군산·정읍·김제 등 서부권역 평균 농도 300 μg/m3

도 보건환경연구원 "실외활동·과격한 운동 자제해달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3일 오후 2시를 기해 서부권역(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을 미세먼지(PM10) 경보로 상향했다.

미세먼지(PM10) 경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μg/m3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되는데, 서부권역 평균 농도 300 μg/m3으로 경보를 발령했으며, 중부권역과 동부권역은 오전 11시와 12시를 기점으로 주의

보가 발령됐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실외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하

고 이와 함께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미세먼지(PM10)는 11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생한 황사에 의해 13일 밤까지 전북 전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http://air.jonbuk.go.kr)을 통해 예보와 경보 상황을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며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요청했다.

또 향후 대기질 변화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와 기상청, 기상정보 등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Merry Christmas

2022 임실 산타축제

12.23.(금) ~ 25.(일)

임실치즈테마파크

* 주최·주관 | 임실치즈테마파크 (재)임실치즈테마파크 * 후원 | 전라북도 임실군